

번호 07-5

제 목	국문	외래환자 대상의 금연치료 방법 개발과 효능 평가: 무작위임상시험			
	영문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out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장락 ¹⁾ , 이명순 ²⁾ , 황진용 ³⁾ , 이종덕 ³⁾ 1)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2)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3) 경상의대 내과학교실			
	영문	JR Kim ¹⁾ , MS Lee ²⁾ , JY Hwang ³⁾ , JD Lee ³⁾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Gyeongs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Sung Kyun Kwan University 3)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yeongsang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0 월				

1. 연구 목적

흡연은 우리 사회의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일의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흡연을 하던 사람도 금연을 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률이 낮아지고, 질병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접근법 중, 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는 금연치료는 환자들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건강에 관한 의사의 권고를 중요시하므로 그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의사의 금연 치료 지침이 개발되고 평가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의사들의 관심도 적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래 진료실 실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금연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연구 방법

1) 금연치료 방법의 개발
미국 의료정책연구국(AHCPR)의 1996년의 진료실 치료 지침(5A: Ask, Advise, Assess, Assist, Arrange)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 및 군 배정
2000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경상대학교 내과 외래 환자 중에서 의사 문진 결과 하루 한 개피 이상 흡연을 하고, 연구에 동의한 40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 의해 흡연 여부에 대한 확인(Ask)을 받고, 그중 흡연자는 건강을 위하여 금연이 필요함을 간략하게 교육(Advise) 받았다. 이들중 본 연구 참여를 동의한 사람들은 고정무작위법(fixed randomization) 방법에 따라 한 달내 금연의지 유무, 한 달내 입원 예정 유무 및 금연도우미(3명)를 층화변수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비 1:1, 배정시행단위는 6이 되게 실험군(도움군) 및 대조군(의지군)에 배정되었다.

3) 실험군(도움군)의 금연 치료 내용

도움군에 배정된 연구대상자(200명)들 중 한 달내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전직 간호사인 금연 도우미와 함께 금연일 설정, 서약서 작성 등을 하고 금연 도움 책자 및 금연 도움말을 제공받았다. 금연 도우미는 이후 금연일 후 1주 및 4주 이내에 전화로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 중인 경우는 격려를 하였다. 의지군(대조군)에 배정된 201명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지로만 금연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금연 여부에 대한 추적 조사와 금연 성공의 확인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 대하여 연구참여후 최소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화로 그 동안 금연 시도 여부 및 현재점에서 금연중(금연 시도후 담배를 한 개피도 피우지 않음)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금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후 가까운 시일에 병원 외래에서 만나거나, 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Smokerlyzer[®], Bedfont Scientific)로 호기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8 ppm 미만이고, 전화 면접이후에도 담배를 한 개피도 안 피웠다 고 하는 경우에만 금연 성공으로 분류하였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금연 실패로 분류하였다.

5) 분석방법

금연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분석과 다변량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때 추적불능인 7명의 연구대상자의 경우는 금연 실패로 간주하였다.

3. 연구 결과

1) 도움군과 의지군은 총화변수인 한 달내 금연의지 유무, 한 달내 입원예정 여부는 물론 그 외의 잠재적 혼란변수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동거여부, 흡연 동거자 유무, 질병중증도, 자기효능(self-efficacy), Fagerstrom 니코틴 의존도(FTND)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본인 말로 현재 금연성공과 일산화탄소측정기에 의한 금연성공의 일치율은 도움군은 58.3%, (28/48), 의지군은 69.2%(18/26)였다.

3) 전체에서 5개월간 금연시도율은 64.7%였으며, 도움군은 70.6%로 의지군의 58.9%보다 1.20배(95% CI:1.03-1.39)였다. 금연시도자중 금연성공률은 전체에서 18.0%, 도움군은 20.1%, 의지군은 15.5%였다.

4) 전체에서 금연성공률은 11.5%(46/401)였으며, 도움군은 14.0%(28/200)로 의지군의 9.0%(18/201)보다 1.56배(95% CI: 0.89-2.73) 높았다.

5) 한 달내 금연의지가 있는 261명(전체의 65.1%)중 금연성공률은 14.9%, 금연의지가 없는 사람중 금연성공률은 5.1%이었으며, 각각에서 도움군의 금연성공률은 의지군의 금연성공률보다 1.56배(95% CI:0.86-2.84), 1.37배(95% CI: 0.32-5.91)였다.

6) 한 달내 입원예정자 26명(전체의 6.5%)중 금연성공률은 26.9%, 입원예정이 없는 사람중 금연성공률은 10.3%이었으며, 각각에서 도움군의 금연성공률은 의지군의 금연성공률보다 1.33배(95% CI:0.37-4.82), 1.53배(95% CI: 0.83-2.84)였다.

4. 고찰

본 연구에서 제공된 금연 치료방법은 5개월간의 금연시도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그러나 5개월 후의 금연 성공률은 대조군에 비해 1.56배 높지만,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개발된 금연치료방법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고, 전체적인 금연성공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신뢰성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금연 치료방법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